

숨 쉬는 종이를 접었다가 펴고 다시 접는 일

《황수연 개인전: 허밍 헤드》(두산갤러리, 2019.3.6.-2019.4.17.) 리뷰

김빠빠

황수연의 종이 조각은 인체를 닮고자 하는가? 일단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두산갤러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들은 나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 있거나 누워있거나 엎드리거나. 그 중 직립하도록 조립된 것은 인간의 몸보다 크지만, 천장 가까이 자라지 않고, 팔을 돌려 끌어안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상대 인간 모형이 된다. 울룩불룩한 몸체가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뾰족한 덩어리와 얼핏 눈이 마주친다. 스케일이나 비율뿐만 아니라 좌우 대칭성 또한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돕는다. 전시장에 놓인 것들은 대체로 좌우를 반전시켜도 그대로일 만큼 정직하며, 특히 <서서>는 날렵한 머리 하나에 팔다리가 각각 한 쌍씩 돌출되어 충실하게 인간적이다. 이러한 독법 덕분에 전시장의 오른쪽 뒤편의 좌대 위에 자리 잡은 것들은 몸통 없는 머리로 떠다닌다. 서로 다른 색과 질감과 형태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밥상머리에 만둣새가 좋은 맛난 머리들이 올라와 있는 우아한 고어물을 떠올린다.

달리 보면, 종이 조각들을 보며 인체를 연상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착각일지도 모른다. 특정한 스케일의 좌우 대칭형 요소들이 적당히 조립되어 있다면 곧바로 제 신체 같다고 오해하는 인간의 습관은 실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 조각들은 인간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특히 꺾이기만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질감이 균일하게 출력된 얇은 종이로만 서 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공동(空洞)을 숨기려는 노력은 굳이 하지 않는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 안쪽을 들여다보면 면과 면이 접하는 곳에 종이를 질서정연하게 오리고 붙인 자국들이 노출되어 있다. 오리기, 접기, 붙이기의 결과는 기둥이 없는 벽, 가시가 없는 비늘, 등과 표지가 없는 책의 낱장 같은 요소들의 배열이다. 잠재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종이 조각의 속은 또 다른 길, 벽, 촉감, 길이 된다.

속이 곧 겉이고, 겉이 곧 속인 이 형체들, 그리고 반드시 머리, 몸통, 다리로 인식할 이유가 없는 요소들은 무질서한 형태의 군집을 이루기보다 변주하며 반복된다. 헛바닥같이 생긴 곡면들이 위에서 아래로 봉긋하게 이어 내려오고, 이러한 곡면과 곡면이 만나 융기하여 얇고 미끈한 접선이 돌출된다. 네 개의 곡면이 만나면 날카롭게 한 점으로 솟아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의 반복은 일종의 추출 과정을 동반한다. 《허밍 헤드》 이전에 보여주었던 조각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접합되어 있던 모습 중 일부가 '자주 찾는' 형태로 추출되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그 때문에 이전에는 각 조각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했다면, 이번에

만난 종이 조각은 일견 인체 모형 마냥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파츠의 조합이라는 점이 선명해진다.

파츠들이 확연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접합 지점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므려져 있는 종이 조각들은 동시에 펼쳐져 있는 전개도의 모습을 투명하게 지시한다.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조각들이지만, 속을 드러내면서 가두고 있던 공기를 내쉬고 바닥이나 벽에 평평하게 붙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전개도 이미지는 그것을 자르고 붙였을 손, 평평한 종이에 부피를 부여했을 행위를 명령하다시피 한다. 오려야 하는 두꺼운 직선과 접어야 하는 점선으로 구획이 나누어진 전개도는 그 자체로 지시문과 다름없다. 일련의 지시문과 행위의 잠정적 결과물인 종이 조각은 우선 접히고 닫혀있지만 전개도적 사고방식을 환기한다. 곡선과 곡선이 만나 뾰족하게 수렴된 변은 벽을 어떻게 조각내는가? 면과 면이 접합되어 공간을 차지한 저 덩어리는 얼마나 많은 공기를 섭취하였는가? 작은 구멍과 문이 노출한 빈 공간은 전시장의 내부인가 외부인가?

입체도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때, 수학 수업은 거의 만들기 교실이었다. 파스텔톤 종이에 전개도를 그리고, 잉여 면적을 오려내고, 접선 부위를 딱풀로 붙여서 직육면체를 만들고 나면 변이 몇 개인지, 꼭짓점이 몇 개인지, 어떤 변들이 평행인지 따위를 관찰했다. 하지만 나와 친구들은 학습 목표는 안중에 없고 그저 더 튼튼하고 반듯하고 아름다운 직육면체를 만들기엔 골몰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수학은 대체로 도형 만들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평면 도형에 축을 꽂아서 이를 중심으로 360도 돌린 후 부피를 구하기 적합한 단위로 자르는 일의 반복. 강사는 바로 이 돌리기와 자르기를 머릿속에서 1초 만에 할 자신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협박했다. 그 1초 안에 (늘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곤 했다. 짧은 선은 오목하게, 긴 선은 볼록하게 부피를 획득한다. 그 입체도형은 정해진 공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도형 단위로 땀땀 땀땀 토막 난다. (1초는 이미 끝났고, 이제 산수 할 차례다.) 각각의 값을 구했다면 모두 더하여 정답을 구한 후, 언제 잘랐냐는 듯이 시치미를 떤다.

황수연의 종이 조각은 완결된 형태를 유지한 채로 암전히 있는 것 같지만, 만들기의 즐거움과 1초의 시각화를 왕복하며 접히고 펼쳐지고 접히기를 반복한다. 손으로 오리고 접고 조립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상의 좌표 위에 올려진 형태를 환기한다. 손의 동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만진 손과의 씨름을 강렬하게 증거하는 대신 요소의 완결된 조합으로 보이기를 희망한다. 만지다 보면 손을 떠나는 것, 충분히 오래 굴리면 저만의 형태를 찾는 것, 압력을 가하면 그 자체로 전혀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 사물인 것 같지만 얇은 부피를 지닌 바로 그 순간에도 활짝 펼쳐진 평평한 모습을 잊지 않고, 잠정적인 상태를 고수한다. 공기가 그 안팎을 드나들고 중력이 뭉긋하게 각 면을 끌어당기는 동안 이 요소들은 탄력을 잃고 더 너그러운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조차 공식의 주요 변수로 설계되어 있다는 듯 스스로를 펼쳐 보이고, 다시 접혀들 것이다.

잘못된 질문 - “황수연의 종이 조각은 인체를 닮고자 하는가?” - 으로 시작했다. 종이 조각들은 유사성을 공통분모 삼아 인체에 수렴하려는 과제를 의식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자. 인체는 어떻게 황수연의 조각으로 접혀 들어가는가? 종이 조각이 펼쳐질 때 이를 마주한 신체는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가? 종이 조각의 접힘과 펼침의 연쇄는 어떻게 신체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단절하거나 집약하는가?